고향쌀 팔아주기 운동 추진

재경포천시민회 제24회 정기총회

재경포천시민회(회장 이문용)는 12월22일 오후6시30분 도봉구청 16층 스카이라운지에서 회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4차 정기총회겸 포천인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강영길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1부 행사는 국민의례 축하패 전달, 회장 인사 및 주요내빈 격려사, 감사보고, 경과보고, 재무보고, 회칙개정, 건배사 순으로 진행됐다.

축하패는 재경포천시민회 유태열 부회장에게 전달됐다. 이날 축하패를 전달받은 유태열 부회장은 일동면 출신으로 12월4일자로 부치안감으로 승진했으며 대통령 비서실 치안비서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유태열 부회장은 "오늘이 있기까지 이끌어주신 이한동 전 총리님과 이병곤 전 부산경찰청장님께 감사드리고 이문용 재경포천시민회장님과 회원 여러분들의 성원 덕분이며 앞으로 포천인으로서 명예와 자긍심을 갖고 근무하겠다"고 밝혔다.

이문용 재경포천시민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5·30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물의를 일으킨 점 고개숙여 사과한다"고 밝히고 "앞으로 재경포천시민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내고향 포천의 쌀 팔아주기 운동을 재경포천시민회가 포천관내 7개 농협의 협조를 받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무거운 쌀을 들고 다니지 마시고 안방에 앉아서 밥맛 좋은 고향쌀을 싸게 택배로 잡수시고 밥 맛이 좋으면 이웃에 널리 선전하여 고향쌀 팔아주기 운동에 앞장서자"고 강조했다.

고조흥 국회의원은 축사를 통해 "포천발전을 위해 그동안 열심히 노력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현재 포천의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는 교통문제라며 동두천역까지 운행되고 있는 전철을 양주에서 포천으로 이어지는 전철에 경기도지사와 건설교통부장관이 긍정적으로 얘기를 나눴다"고 말했다.

또 고 의원은 "선거 세 번 치르면서 지역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며 "서로 돕고 의지하는 자랑스런 포천인이 될 수 있도록 시민화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강림 포천시의회 의장은 축사를 통해 "포천시는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포천시 인재장학재단설립과 고용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기대진테크노파크와 영북지방산업단지의 순조로운 진행, 도농복합의 친환경 균형발전을 위한 신도시개발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과 포천석 아트밸리 조성사업을 비롯한 대단위 정책사업, 특히 산정호수와 백운계곡, 일동온천을 벨트화하는 450만평에 3조8천억원의 롯데관광개발주식회사가 참여하는 민자 투자를 실시하여 사계절 전환후 휴양레저도시 육성 등이 숨가쁘게 추진 중에 있어 꿈과 비전이 살아있는 희망의 땅, 포천을 만들기 위한 기반을 착실히 다져 나가고 있다"고 밝히고 "이러한 발전의 주역은 뜨거운 향토애로 고향발전을 위하여 지혜와 역량을 모아주신 재경 포천시민회 여러분이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하며 다시 한번 마음 속 깊이 감사의 인사를 올린다"고 강조했다.

또 "자랑스런 재경 포천시민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보다 역동적이며 미래 지향적인 꿈과 희망의 포천시 건설을 위해 재경 포천인 여러분의 열정과 지혜를 지속적으로 투자하여 주실 것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원종학 감사는 감사보고를 마친 후 "재경포천시민회가 정치적으로 흔들리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강하게 지적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회원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동화 재경포천시민회 명예회장의 건배사를 시작으로 만찬이 시작되고 노래 및 장기자랑이 진행됐다.

한편, 이날 강영길 사무국장은 정기총회 개회선언에 앞서 "재경포천시민회 창립 24년만에 포천시장이 불참한 가운데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희망 2007 불우시설 방문

경기도교육청제2청, 성금 전달 장애인·노인 복지시설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진춘)제2청 이영호 부교육감은 12월22일 성탄절 연휴 및 2007 신년도를 맞아 의정부 녹양동 소재 장애인 시설인 '꿈이 있는 땅'·노인양로시설인 남양주 '사랑의 쉼터'·고양 '사랑의 집'·연천 '안나의 집'을

방문하여 제2청직원이 모은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전달하며 사랑의 온정을 베풀었다.

이 부교육감은"장애를 가지고 힘차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장애인과, 외롭게 여생을 보내는 노인들에게 적은 성금이나마 따뜻한 온정의 손길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영북면 축구협회 결성식

'축구인의 밤' 축구발전 다짐

영북면 300여명(일반인 200여명, 군인 100여명)의 축구인들이 하나로 뭉쳤다. 12월17일 영북면 4개 축구회(영북, OB, 파라다이스, 명성)가 모여 영북면 축구협회를 구성하는 결성식 및 '축구인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영북면 축구협회 이병섭 회장은 "그동안 사분오열 되어 있던 축구협회가 하나로 뭉친 만큼 앞으로 영북면 축구발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상택 영북면장은 "영북면 4개 축구 클럽이 하나되는 모습을 보면서 영북면 발전에 대한 기대가 예상되며 영북면 지방산업 단지 등 지역발전을 위한 호재가 많으므로 앞으로 축구인들과 함께 영북면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지원 1기갑 여단 참모장은 "부대의 두 번째 지휘관이 아닌 체육인의 한 사람으로서 축구인의 막내로 받아주신 것에 감사 드리고 열심히 운동하며 지역사회와 군부대의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소개된 영북면 축구협회 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한편, 이날 행사는 강명호 포천시 축구협회장, 이명교 영중면 축구협회장, 배상택 영북면장, 이영재 소흘읍장, 강지원 1기갑여단 참모장, 이상용 영북농협 조합장, 손영배 영북중학교 운영위원장, 류연준 호남향우회장등 내빈과 축구협회 회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김미경 주부명예기자단 영북면지부장 hsd5333@hanmail.net

'사회정의 실현 앞장' 당부

강준희 보안과장 정년퇴임식

포천경찰서(서장 김종해)는 12월27일 포천경찰서 강당에서 각 과·계장, 지구대장, 파출소장 등 직원 100여명과 포천시장, 경우회장 등 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강준희 정보보안과장의 정년퇴임식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옥조근정 훈장 수여를 시작으로 꽃다발 증정, 경기청·경찰서 상조회전별금 전달, 직원들의 기념품 전달, 포천시장·경우회장 공로패 전달, 강준희 정보보안과장의 퇴임사순으로 진행됐다.

강준희 정보보안과장은 1972년 9월 30일 순경으로 국립경찰에 투신 포천서 가산지서 근무를 시작으로 포천서 방범계장, 정보계장, 소흘파출소장, 의정부 신곡지구대장, 포천서 정보보안과장 등 주요 부서를 근무하였으며, 34년 3월의 재임기간 중 행자부장관 표창 4회 등 총 30회의 포상을 수상했다.

이날 강준희 정보보안과장은 퇴임사를 통해 34년의 공직생활을 마감하며 동료 경찰관들에 "부단한 자기 반성과 혁신, 그리고 단합된 조직의 의지로써 사회 정의 실현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2006년도 노인지도자 혁신교육

대한노인회 포천시지회 300여명 대상

대한노인회 포천시 지회(회장 이금종)는 12월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포천시 여성회관에서 노인지도자 혁신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포천시 관내276개 소 경로당 대표, 노인대학장 등 노인지도자 30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대진대학원 이만수 학장을 초빙하여 지식기반 사회와 어르신의 리더십에 대한 강의로 진행되었다.

박윤국 포천시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경로당 및 노인단체를 이끄는 노인지도자의 노고에 대한 고마움과 성공적인 노화에 중점을 둔 포천시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하기도 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Essay 보내는 아쉬움

윤순옥 포천의제21협의회고문

온 세상을 망탕대해에 감춰버릴 듯 한 치 앞을 분간할 수 없는 새벽 안개가 시간이 지나도 좀처럼 거칠줄 모르더니 따뜻한 햇살이 산봉우리부터 훑어 내리며 안개를 쓸고 있다.

겨울은 계절답게 추워야 한다지만 따뜻한 겨울이 반가운 것은 대다수인들이 편한 마음으로 보낼 수 있기 때문인 것 같다.

눈이 내리고 추워지면 곳곳의 사고소식에 안타까운 속내를 앓기 때문이다. 어렵고 힘든 지난해지만 각자의 자기분야에 최선을 다해 빛을 내준 고마운 이들이 있기에 많은 사람들이 위로 받을 수 있었던 것 같다.

십대의 어린 몸으로 세계정상에서 국위를 빛낸 장한 모습!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뇌의 시간들을 보냈을까?

정치권의 어르신들도 마음 비우고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노력에 노력을 거듭하면 좋은 일도 있으련만....

남을 밟고 올라서야만 갈 수 있는 길 뿐인지..... 아직도 일년이나 남은 대선으로 난리통속이니..... 마음 여린 국민 앞에 연민의 눈물까지 보이며 고지를 점령하더니 이제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방인같은 발언과 악어의 미소까지 보이려는지 실로 염려스러운 청와대 지붕이 색깔이 변할까 두렵기도 하다.

새해에는 희망봉에 태극기라도 꽂을 수 있는 비장한 각오로 변화되었으면 좋을텐데....

마음에 삭혀버릴 일들이 많은 사람들이 새벽을 안고 동해로 울진으로 신년의 새아침을 맞으러 먼 길을 떠난다.

어린자녀들까지 동반하여 새해의 소망을 기원하며 마음속 깊이 빌고 또 빈다. 그날은 눈 마주치는 모든 이들과 따뜻한 미소를 보내고 따듯한 차 한잔에 서로의 마음을 나누며 시린 발끝까지 녹여주고 있다.

산등성 높은 곳의 추위쯤이야 무탈하게 보낼 수 있는 새해의 기대는 수천수만의 인파속에서 산바람도 바닷바람도 대수롭지 않다.

새해는 정해년 황금돼지 해라고 사람들은 말한다. 기대하는 마음들이 서로에게 격차없이 누구에게나 많은 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염원하는 새해라고 생각된다.

포천의 반월산에도 해맞이 시민들의 신년소망을 기원하는 많은 인파가 산을 오를 것이다.

따뜻한 마음들을 모아모아 포천시의 중요한 안녕을 소원하고 지역언론의 대동맥 역할을 하는 포천신문사도 무궁한 발전과 더불어 관계된 좋은 분들의 건강하심을 기원한다.

웰빙 부사의(不思意) 4 종교(宗教)

'착하고 선하게 살라'

이규임 한국영상제작학회회장

"종교(宗教)가 뭐냐?"는 말을 흔히 듣는다. 또 "무엇을 믿느냐?"는 말도 흔히 듣는다. '신앙(信仰)'의 대상이 뭐냐는 말이다. '종교나 신앙'이란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누구나 다 알 것이다. 그러면서도 막상 '종교'라는 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대답이 궁해진다. 종교란 '가르침'을 말하는 것이다. 그것도 '우뜸 가르침'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종교(宗教)라고 쓸 때에 '마루종(宗)'자를 쓰는 것이다. '우뜸'이란 뜻이다. 그리고 신앙이란 '믿음'을 말하는 것이다. 믿는다는 것이다. 종교는 가르침이고 신앙은 믿음이란 말이다. 이처럼 '종교와 신앙'은 불가분의 것이다.

우리는 반만년(半萬年)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 시원은 단군(檀君)이시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삼교지도(三教之道)'이다. 개천시대(開天時代)에 그 험난한 세상을 '삼교지도'로 헤쳐 나가라고 가르치신 것이다. 삼교지도에서 삼교란 '지감(止感)'과 '조식(調息)'과 '금촉(禁觸)'을 말하는 것이다. 지감이란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을 설파한 것이고 '조식'이란 몸을 다스리는 방법을 설파한 것이며 '금촉'이란 나와 상대를 다스리는 방법을 설파한 것이다. 이 '세 개의 교가 한데 어울려 도를 이룬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삼교지도에서 말하는 '도(道)'란 무엇인가? 도란 무위자연(無爲自然)을 말하는 것이다. 도란 '자연의 섭리(攝理)'와 '자연의 이치(理致)'를 말하는 것이다. '도란 자연 그 자체요, 자연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 모든 교는 '자연의 이치'를 말하는 것이고 '자연의 섭리'를 따르는 것이란 말이다. 자연을 '떠나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자연을 '초월(超越)'해 존재하는 것도 영영 없다는 말이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도(道)'는 버리고 '교(教)'만 가지고 다툰다. 도를 저버리고 교만가지고 다투니까 갈등(葛藤)이 생기고 반목(反目)이 생기고 '싸움'이 벌어지는 것이다. 도를 바라보면 화합(和合)할 텐데 도는 보지 않고 교만 바라보니까 주장(主張)이 엇갈리고 분열(分裂)이 생기고 고집(固執)이 생기는 것이다. '교만 볼 것이 아니라 도를 보아야 한다.'

등산(登山)을 해보았을 것이다. 산을 올라 보았을 것이다. '산'을 오르는 길은 여럿일 수 있다. 그러나 정상(頂上)은 '하나'이다. 정상에 오르면 모두가 한 자리에서 만난다. '교'도 마찬가지이다. 정상에 오르면 '하나'다. 이루고 나면 '하나'다. 깨우치고 나면 '하나'다. 일화(一和)로 통한다. 그래서 진리(眞理)는 하나이고 그 '하나' 모든 사람에게 통하는 것이다.

'내 것'만을 주장해서는 안 되는 이유이다. '내 가르침'만 주장해서도 안 되는 이유이다. '남의 것'도 인정해줘야 한다. '남의 가르침'도 인정해줘야 한다. 모든 것은 자연(自然)이 말해주고 풍토(風土)가 말해주기 때문이다. 기후(氣候)가 다르고 풍토가 다른데 어찌 '나처럼 살라 하고, 나처럼 행동하라' 하는가? 기후가 다르고 풍토가 다르기 때문에 한 나라에서도 지역에 따라 '사투리'가 생기고 '방언(方言)'이 생기는 것 아닌가? 이처럼 엄연(儼然)한 사실을 누가 부정하겠는가?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을 설파한 것이 불교(佛教)이고 '몸'을 다스리는 방법을 설파한 것이 도교(道教)이며 '나와 상대'를 다스리는 방법을 설파한 것이 유교(儒教)란 사실을 알아야 한다. 기독교 또한 마음을 다스리는 것을 설파한 종교(宗教)라는 사실도 알아야 한다. 불교는 '석가(釋迦)'의 가르침이고 도교는 '노자(老子)'의 가르침이며 유교는 '공자(孔子)'의 가르침이란 것은 누구나 다 안다. 그리고 기독교는 '예수'의 가르침이란 것도 다 안다. 그런데 어떤 종교이던지 그 종교의 가르침을 요약해 보면 "착하고 선하게 살라"는 것이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새겨듣기 바란다.

특별기고 책임정치 구현

이중희 민주평통포천시 협의회장

중국의 춘추전국시대 제(齊)나라에는 맹상군이라는 인덕과 지혜와 용기와 신의를 겸비한 큰 인물이 있었다.

맹상군은 아버지 정승 전영과 천첩사이에서 태어났으나 어렸을 적부터 비범함과 탁월함을 알아본 전영은 전문을 적자로 삼고 맹상군이라는 칭호와 설공이라는 작호를 계승하게 하고 집안의 대를 잇게 했다. 맹상군은 십 여살 때부터 집안 살림을 맡아보고 손님접대를 하게 되니 천하의 선비들이 제나라에 오면 맹상군과 만나서 담론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며 기뻐하게 되니 선비들은 더욱 많이 맹상군 문하로 몰려들었다. 맹상군은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이면 그 사람이 잘 낫건 못 낫건 간에 다 받아 들였다. 그리하여 천하의 많은 망명객들과 죄를 짓고 열국을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다 맹상군 문하로 모여들었다. 맹산군 문하에는 문·무뿐 아니라 별의별 재주와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지니 진(秦)나라도 제나라를 두려워하게 되었다.

맹상군은 자기가 입는 의복과 음식을 추호도 다름없이 모든 선비와 같이 했다. 어느 날 밤이었다. 그 날도 맹상군과 선비들이 함께 저녁식사를 하는데 어쩌다가 불빛이 손님들 밥상에만 비치고 서가에 가려서 맹상군의 밥상은 잘 보이지 않고 컴컴했다. 그 때 한 선비가 젓가락을 던지면서 소리쳤다.

「맹상군 밥상과 우리 밥상에 차별이 있구나. 그렇지 않고서야 왜 주인이 어두운 곳에서 밥상을 받을 리 있으리요. 나는 맹상군이 어진 분 인줄 알고 찾아 왔더니 허무한 사람이었구나. 나는 밥 얻어먹으려고 이 곳에 온 것이 아니라 맹상군이 큰 인물인 줄 알고 왔느니라.」 고 외치며 벌떡 일어나 분연히 나갔다. 맹상군은 황급히 일어나 그 선비를 데리고 자기 밥상에 가서 불을 켰다. 과연 맹상군의 밥상은 모든 선비의 밥상과 똑같았다. 그 선비는 깊이 탄식했다. 「맹상군은 이렇게 모든 선비를 대우하건만 나는 주인을 의심했으니 참으로 소인이로다. 내 이제 무슨 면목으로 맹상군 문하에 서리요!」 하면서 즉시 칼을 뽑아 자기 목을 찌르고 그 자리에서 자결했다. 맹상군은 크게 애석해 하고 슬퍼하면서 선비의 장례를 치러 주었다. 모든 선비는 맹상군에게 감동했다.

이것이 올바른 정치인이나, 공직자, 지도급 인사들이 취해야 할 도리인 것이다. 하지만 우리 상황은 이런 맹상군과 선비의 신의와 도리는커녕 최소한의 인간으로서의 양심마저 실종되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올 해 한반도 위기를 최고조에 이르게 했던 북핵 실험문제도 그렇다. '북한은 핵을 개발한 적도 없고, 의도도 없고, 능력도 없다', '대북 지원금이 핵개발로 전용된다는 얘기는 터무니없다'고 강조했던 사람들은 그들의 말이 허구임이 들어났고 국가 안보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음에도 그들은 지금 유구무언(有口無言)이다. 오히려 이런 사실을 감추기에 급급하고 아무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사회의 공기인 언론도 마찬가지다. 온·오프라인 언론을 불문하고 아니면 말고 식의 폭로와 허위사실 유포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지만, 오보임이 밝혀져도 사과 한마디하는 경우가 드물다.

우리 국민은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양심도 실종된 상황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 책임지지 않고 유야무야 넘어가는 우리의 현실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진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그 나라 정치수준은 그 나라의 국민수준과 정비례한다고 한다. 이 나라는 OECD국가 중 가장 부패한 나라라는 TI(국제 투명성본부)의 발표는 우리를 부끄럽게 한다. 모든 국민들은 정치인들의 부정부패에 분노하고 욕을 한다. 그러나 그러한 의원들을 선택해 놓은 것이 누구인가? 우리 국민들이다, 국민이 깨어 있어야 한다.